

<酒老園擊壤歌>의 구조와 의미*

조 태 흠**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隱居, 관념속의 이상적 삶 |
| II. <주로원격양가>의 四時歌의 구조 | 2. 出仕, 때의 기다림 |
| III. <주로원격양가>의 의미 | 3. 愛民, 빈천의 도 |
| | IV. 맺음말 |

I. 머리말

<酒老園擊壤歌>는 조황이 지은 연시조 작품이다. 趙槩(1803 - ?)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40수의 시조 작품을 남기고 있어¹⁾ 작품 수로 본다면 李世輔, 安致英에 이은 세 번째 다작 작가로, 시조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황이나 그의 시조에 대한 연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황은 『三竹詞流』에 111수, 『三竹詞流異本』에 92수의 작품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沈載完님에 따르면 『三竹詞流異本』은 초고본이고, 『三竹詞流』는 完本인데, 『三竹詞流異本』 가운데 『三竹詞流』와 중복되지 않는 작품은 29수이다. 따라서 조황이 남긴 작품은 모두 140수다.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研究』, 세종문화사, 1972. 31-34쪽.

구는 지금까지 3편에²⁾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진한 편이다. 이처럼 조항 시조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그의 전기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전하지 않아 생애가 불분명하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유교적 교훈을 나열하여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³⁾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항에 대한 연구는 대개 생애를 살피거나 재구성하여 보고, 그의 작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몇 작품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현실인식의 방향을 고찰하여 당대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을 뿐, 그의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鄭明世는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 조항의 생애를 살피고, 그의 작품 가운데 현실 비판적인 시조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내용을 살피고, 가치를 평가하였다.⁴⁾ 조규익은 『三竹詞流』에 실려있는 작품의 序·跋文을 중심으로 조항의 문학 정신과 세계를 고찰하였다.⁵⁾ 정홍모는 『淳昌趙氏世譜』와 시조, 그리고 각종 서·발을 통해서 조항의 가계와 생애를 재구성하여, 그의 현실인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그의 시조의 당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⁶⁾

이러한 앞선 연구들은 조항 시조 연구의 기틀을 닦고 이해의 깊이를 더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항의 작품을 이처럼 특별한 성향을 보이는 몇몇 작품을 선별하여 검토하고 그

2) 조항이나 그의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말한다. 그 외 19세기 시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한 부분으로 조항의 시조를 다룬 것이 있는데, 아래 두 편이 대표적이다.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247-262쪽.

이동연, 『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 57-98쪽.

3) 조동일님은 조항의 작품을 “서학을 배격하고, 유학의 교훈을 늘어놓는데 그치고 상투적인 문구를 적당하게 배열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질이 양을 따르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조동일, 제3판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3. 306쪽.

4) 鄭明世, 『趙三竹時調의 研究』, 『語文學』 48집, 한국어문학회, 1986.

5) 조규익, 『趙槁의 노래』,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6) 정홍모, 『삼죽 조항의 시조연구』,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의미를 부여할 경우, 그의 작품에 나타난 하나의 경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의 작품이 지닌 총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조황의 시조는 모두 제목이 분명하게 표기된 연시조 작품이기⁷⁾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 편의 연시조 작품은 단시조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여러 수의 단시조가 어떤 질서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시조 작품은 각각의 단시조를 개별 작품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연구하여야만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조황의 다섯 편의 연시조 작품 가운데 <주로원격양가>를 그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작품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다른 네 편의 작품에 비해 유교적 이념의 편향성이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향촌에서의 그의 삶과 의식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황과 그의 문학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 우선 <주로원격양가>가 연시조로서 가지는 구조를 분석하여 이 작품이 유기적으로 짜여진 통일체임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작품 전체를 하나의 의미있는 통일체로 파악하여 이 작품에 드러난 총체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 작업은 조황과 그의 시조를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시조의 한 양상을 파악하고,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조의 전통과 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7) 『三竹詞流』에 실려있는 조황의 작품은, <人道行> 10수, <箕裘謠> 40수, <酒老園擊壤歌> 30수, <秉彝吟> 20수, <訓民歌> 10수 등의 연시조 5편과 <백옥루상량문>에 포함된 1수의 평시조로 모두 111수이다.

II. <주로원격양가>의 사시가적 구조

<주로원격양가>는 모두 3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황이 향리인 제천에 소재한 주로원에 거처하면서⁸⁾ 자신의 삶과 감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주로원격양가>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부분은 자연 속으로의 은거를 하기로 한 결심과 그 동기, 그리고 은거의 삶을 포괄적으로 읊고 있는 序詞이고, 다른 한 부분은, 자연 속에서의 구체적 삶과 그 감회를 계절별로 나누어 노래하고 있는 本詞이다.

서사는 <주로원격양가>의 제1수부터 제10수까지 10편의 시조로 되어 있다. 서사의 각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종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서사를 세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에 (1)~(3)번까지 번호를 붙였다.

(1)두어라 너손에 一壺酒로 餞別千古 허리로다. <擊壤歌 1>⁹⁾

두어라 此生에 남은 歲月 酒中에나 보너리라. <擊壤歌 2>

날거튼 康衢無事人은 擊壤歌나 허리로다. <擊壤歌 3>

(2)엇지타 巖穴間 이 스름은 康濟一身뿐이로다. <擊壤歌 4>

至今에 張華가 업스니 斗牛龍光 그 뉘 알리. <擊壤歌 5>

그 중에 世間公道가 白髮흔아 뿐이로다. <擊壤歌 6>

(3)허물며 글닐고 뵈씨는 소리 人間樂聲이로고나. <擊壤歌 7>

엇지타 世間 이 滋味를 이제 와서아라는고. <擊壤歌 8>

아마도 이몸에 一動一靜 저 山川에 비오리라. <擊壤歌 9>

8) 鄭明世, 앞의 논문, 181쪽.

9) 본고에서 조황의 작품은 『송실어문』 5집(송실대 송실어문연구회, 1988)에 영인하여 수록한 『三竹詞流』에서 인용하고, 인용시 작품명은 < >로 표시하고, 해당 작품의 순서는 작품명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격양가 1>은 <주로원격양가>의 제1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千古에 巍巍헌 니 벗슨 堯夫一人이로고나. <擊壤歌 10>

(1)에서 화자는 역대 인물과 영웅호걸들을¹⁰⁾ 모두 이별하고, 九鶴山¹¹⁾ 골짜기의 무릉선원을 찾아서 남은 여생을 ‘격양가’나 노래하면서 보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사의 제1수부터 제3수까지에서 화자는 세상사를 잊고 자연에 은거하여 ‘격양가’나 부르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노래하고 있다.

(2)에서는 남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아 세상의 허다한 일을 해야 하지만,¹²⁾ 때를 만나지 못하여 궁벽한 처지에 놓인 화자는 제 한 몸 간수하기에 급급하다 하고, 이어 지금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한다. 그리고 제6수에서는 잘못된 과거제도 때문에¹³⁾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2)에서는 ‘때를 만나지 못함’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세상’ 그리고 ‘잘못된 과거제도’ 등과 같은 세상과의 불합치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자가 세상사를 잊고 은거의 삶을 선택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사의 제4수에서 제6수까지는 화자가 은거의 삶을 택한 동기를 노래하고 있다.

(3)에서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과 그 즐거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제7수에서는 아들의 글 읽는 소리와 아내의 베 짜는 소리에 기쁨

10)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격양가 1>의 초·중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伏羲氏 書契後로 歷代人物 니 아노라 / 日月星辰 도는디로 英雄豪傑 가고 간다

11) <격양가 2>의 초·중장은 다음과 같다.
 九鶴山 김흔 골에 桃花流水 짜라드니 / 窈窕헌 一洞天이 武陵仙源 아닐러나. 여
 기서 ‘구학산’은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 사이에 있는 산.

12) <격양가 4>의 초·중장은 “男兒가 世間에 날 제 聰明耳目稟賦호여 / 宇宙內許多
 事가 나의 닐이 아니여닐”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하였다.

13) <격양가 6>의 초·중장은 잘못된 과거제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唐太宗 줌통안에 天下英雄 다 늘거다 / 鄉三物 더져두고 聲律試士 어인 닐고 /

을 느끼고, 제8수에서는 좁은 밭을 가꾸어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는¹⁴⁾ 재미를 늦게나마 깨닫고, 제9수에서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자연에서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제10수는 서사의 마지막 작품으로 서사 전체의 의미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연에서 세상사를 잊고 은거하는 화자 자신의 삶은 宋代의 대학자로서 조정의 부름을 마다하고 자연에 은거한 소요부의 삶과 닮았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원격양가>의 서사에 해당되는 10수의 시조는 다시 3개의 의미 단락으로 짜여 있다. 첫째 단락은 제1수부터 제3수까지로 자연에 은거하려는 화자의 결심을 노래하고, 둘째 단락은 제4수에서 제6수까지로 은거를 택한 된 동기를, 그리고 마지막은 제7수에서 제10수까지 4수의 시조로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주로원격양가> 전체 30수의 작품 가운데 10수가 서사로 되어 있어, 전체 작품의 균형상으로는 서사가 다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는 다시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은거의 결심, 은거의 동기, 그리고 은거의 삶을 노래하고 있어 서사 자체로는 완결된 형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체 작품의 서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에 이은 본사는 모두 20수의 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가 은거의 결심과 동기, 그리고 그 삶을 포괄적으로 노래하였다면, 본사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즉, <주로원격양가>는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작품의 전개와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본사의 각 작품에서 계절적 특징이 직접 드러난 구절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계절이 바뀌는 곳마다 구분하고, 각각 (1)-(4)까지 번호를 붙여 놓았다.

(1)東風에 細雨섯거 太平春光 그려니니 <擊壤歌 11>

14)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초·중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陋巷田十五頃에 八口生涯 더져두고 / 成都桑八百株에 冬裘夏葛 自在허다

화원에 저 나뭇야 이춘색이 누 시절고 <擊壤歌 12>
桃花水 술진고기 네丙穴에 나지마라 <擊壤歌 13>
東園에 桃李花야 네 繁華를 밋지마라 <擊壤歌 14>
春眠을 찌리 업서 日高三竿 모로거나 <擊壤歌 15>

(2)北窓淸風 긴긴 날에 周易一卷 압헤 노코 <擊壤歌 16>
前山에 노던 사슴 썰간후로 못보거다 <擊壤歌 17>
洪爐中 타는 밤헤 終日허는 저 農夫야 <擊壤歌 18>
霖雨姿 엷다 허고 憂國願豊 아닐소냐 <擊壤歌 19>
淸涼현 이 世界에 三伏蒸炎 어디 간고 <擊壤歌 20>

(3)피마다 錦屏이요 이들저들 黃雲이라 <擊壤歌 21>
陶處土 籬下菊이 이山中에 꺾였시니 <擊壤歌 22>
北海上 찬 바람에 울고 오는 저 기력야 <擊壤歌 23>
松壇에 잠든 鶴이 一陣霜風 꿈을 찌여 <擊壤歌 24>
山村에 秋夜長허니 擲梭聲이 淒涼허다 <擊壤歌 25>

(4)山窓에 雪撲거닐 濁酒三盃御寒허고 <擊壤歌 26>
夕陽天 눈긴 후에 놓히 도는 소로기야 <擊壤歌 27>
雪中에 주린 어이 反哺허는 소리로다 <擊壤歌 28>
中天에 雪後月이 少年時에 돛터이라 <擊壤歌 29>
床前에 一點燈이 六十年來 親舊로다 <擊壤歌 30>

위에 인용된 (1)은 <주로원격양가> 제11수에서 15수까지 다섯 편의 작품에서 계절적 특징이 잘 드러난 각 시조의 초장을 뽑아 적은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동풍’ ‘태평춘광’ ‘화원’ ‘춘색’ ‘도화수’ ‘도리화’ 등은 江湖詩歌나 四時歌에서 봄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소재들이다. <주로원격양가> 본사의 처음 다섯 수의 시조들은 이 같은 봄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삶과 감회를 읊고 있는 春詞라 하겠다.

(2)에 인용된 작품은 <주로원격양가>의 제16수에서 제20수까지의 다섯 편이다. 여기에는 ‘청풍’ ‘홍로’ ‘霖雨’ ‘三伏蒸炎’와 같은 여름의 계절

적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 나타나 있다. 다만 제17수의 ‘前山에 노던 사슴
썰간후로 못보거다’라는 구절에는 계절적 특징이 표면상으로는 드러나
지 않지만, 사슴이 5·6월에 뿔을 간다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면 문맥
에 함축된 계절적 의미는 여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원격양가>의 제16수에서 제20수까지 다섯 편의 시조는 이처럼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夏詞에 해당된다.

(3)은 <주로원격양가> 제21수에서 제25수까지 다섯 편의 시조에서 뽑
은 구절들이다. 제25수에는 단풍이 든 산[錦屏]과 곡식이 익어 누런 들
[黃雲]이 배경이 되어 있고, 제26수에는 ‘국화’, 제27수에는 ‘기러기’ 그리
고 제28수에는 ‘靄風’이 나타나 가을이 배경임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 제
25수에는 기나긴 가을밤[秋夜長]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 다섯 수의 작품은 가을을 맞이한 화자의 감회를 노래한 秋詞
라 하겠다.

(4)에 인용된 작품은 제26수에서 <주로원격양가>의 마지막 작품인 제
30수까지이다. 이 작품들은 겨울을 알리는 ‘눈’이 소재로 나타나 있다.
‘山窓’에 부딪치는 눈, 눈 갠 하늘에 높이 나는 솔개, 눈 속에 주린 까마
귀, 눈 온 뒤에 뜨는 달 등이 나타나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겨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의 마지막 다섯 수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冬詞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주로원격양가>의 본사는 일 년의 四時인 봄·여름·
가을·겨울이라는 객관적 자연의 시간이 작품의 전개의 질서로 실현되
어 작품에서 春詞·夏詞·秋詞·冬詞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는 일 년의 四時인 봄·여름·가을·겨울의 순
차적 진행에 따라 詩想이 전개되는 사시가적 구조를¹⁵⁾ 지니고 있는 작

15) 四時歌란 일 년이나 한 달, 또는 하루의 생활을 四時順에 따라 순차적으로 노래
한 일련의 시가군을 일컫는다.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문학박사학위논
문, 전남대대학원, 1992. 8-9쪽.

품이다. 또 春詞·夏詞·秋詞·冬詞에는 각 계절마다 정연하게 5수의 시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다섯 수의 노래 사이에는 아침·낮·저녁·밤과 같은 다른 시간적 질서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는 時相展開類型으로¹⁶⁾ 볼 때는 일 년 사시의 봄·여름·가을·겨울의 단일 時相으로만 순차적 구성을 이루는 單一時相展開型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는 전체적으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작품이 구성되어 있지만, 春詞·夏詞·秋詞·冬詞의 각 계절별 다섯 수 사이에는 다시 아침·낮·저녁·밤과 같이 하루 사시의 시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기적인 질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복합시상 전개형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비교해 볼 때, 각 계절별 노래의 유기적 짜임새는 <주로원격양가>가 더욱 느슨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원격양가>는 한 편의 연시조로서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의 작품은 크게 본사와 서사로 나누어져 있고, 서사는 다시 화자의 결심, 은거의 동기, 그리고 은거의 삶을 노래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사는 일 년 사시의 변화에 따라 작품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사시가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는 전체적으로 사시가계 연시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시가적 구조를 지닌 작품은 우리 시가사에서 시조, 가사, 한시 등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데,¹⁷⁾ 시조의 경우에는 대개 연시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시가적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뚜렷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六歌系 연시조’ ‘五倫歌系 연시조’와

16) 김신중은 時相 展開 양상에 따라 單一時相展開型, 複合時相展開型 I, 複合時相展開型 II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複合時相展開型 I은 일년 사시(春·夏·秋·冬)의 네 時相과 하루 사시(旦·晝·暮·夜)의 네 時相이 유사한 것끼리 서로 짝을 이뤄 대응하면서 중첩되는 時相 展開 類型이고, 複合時相展開型 II는 春詞, 夏詞, 秋詞, 冬詞의 각 단락이 다시 하루의 사시인 아침, 낮, 저녁, 밤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時相 展開 類型이다. 김신중, 위의 논문, 53쪽 및 60쪽.

17) 김신중은 한국 사시가를 연구하면서, 시조체 사시가, 가사체 사시가, 한시체 사시가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김신중, 위의 논문 참조.

함께 ‘四時歌系 연시조’로 연시조의 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¹⁸⁾

사시가계 연시조는 15세기 孟思誠의 <강호사시가>을 시작으로, 黃喜의 <사시가>를¹⁹⁾ 거쳐 16세기 李珣의 <고산구곡가>로 이어졌다. 17세기에는 尹善道の <어부사시사>, 辛啓榮의 <전원사시가>, 李徽逸의 <楮谷田家八曲> 등이 나타나 사시가계 연시조는 조선 중기에 크게 성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는 17세기 후반 이휘일(1619-1672)의 <저곡전가팔곡>을 마지막으로 사시가계 연시조의 창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²⁰⁾ 알려졌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황의 <주로원격양가>가 사시가계 연시조임을 밝힘으로써 ‘사시가계 연시조’의 전통은 17세기 후반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로원격양가>와 전대의 사시가계 연시조를 대비·고찰하면 시조문학에서 사시가의 전통이 어떻게 지속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조선조 향촌 사대부들의 시조의 전통과 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 최재남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隱居之意’를 가지는 ‘六歌’, 교훈적 성격의 ‘오륜가’, 순환적 성격의 ‘사시가’로 연시조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재남, 『士林의 鄉村生活과 詩歌文學』 (국학자료원, 1997). 280쪽). 金相珍은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하여 시간질서를 나타내는 ‘四時歌系’ 인간질서를 나타내는 ‘五倫歌系’ 공간질서를 나타내는 ‘六歌系’로 연시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19) 황희의 <사시가>는 가집에 따라서는 연시조가 아닌 별개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고, 작가도 황희, 맹사성, 김굉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각 가집에 수록된 양상, 작가 표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시가>는 황희가 지은 연시조 볼 수 있다. 崔東元, 『15세기 시조의 양상과 성격』, 『古時調論考』, 삼영사, 1990.

20) 김신중, 앞의 논문, 82-83쪽.

Ⅲ. <주로원격양가>의 의미

1. 隱居, 관념 속의 이상적 삶

조황은 ‘酒老園擊壤歌序’에서 이 작품의 이름을 ‘격양가’라 한 까닭과 그 노래의 성격을 말하고, 우리말로 노래를 짓게 된 경위와 이 노래를 엮어 부르는 가곡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신의 노래에 ‘격양가’란 이름 붙인 이유를 설명하는 ‘주로원격양가서’의 앞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격양가란 옛날 야인의 노래다. 그대는 농사짓는 사람의 부류가 아닌데, 어찌하여 이것으로 그 노래의 이름을 삼았는가. 내가 말하기를, 아아, 옛날에 격양가를 부른 사람이 어찌 稷契의 부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임금이 노래를 지으니 夔가 이를 이었고, 순임금이 南風을 노래하니 百工이 화답했다. 저 어리석은 늙은이는 賡歌의 연석에 나아가기 못하고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빈천에 처하여 빈천의 도리를 행하던 자이다. 이로부터 몇 천 년 후에 송나라 소요부가 巢夫·許由와 요순의 노래와 같이 하기를 원하여 四太平詩와 擊壤集을 지었는데, 또한 각각 그 뜻을 말한 것일 따름이다.²¹⁾

이 글은 ‘격양가’는 농부가 태평성대를 즐기는 노래인데, 선비인 조황이 지은 노래에 왜 ‘격양가’라는 제목을 붙였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에 그는 稷契도 원래는 농사를 지으면서 빈천에 처하여 빈천의 도를 행하다 발탁되었으니, 농부의 부류와 다르지 않고, 또 몇 천 년 후에 소강절이 은거하면서 ‘사태평시’와 ‘격양집’을 남겼는데,

21) 或有問於余曰 擊壤歌者 古野人之歌也 子非農家者流也 何以是名其歌 余曰噫喜古之擊壤者 安知非稷契之倫乎 堯作大章 一夔足矣 舜歌南風 百工之和 彼蚩蚩一老 無預賡歌之席 而有所耕鑿之野 乃所以素貧賤 而行貧賤者也 者是後累千載 有宋邵堯夫 願同巢許之老 唐虞歌 有四太平詩 有擊壤集 亦各言其志也已。”<酒老園擊壤歌序>

그 뜻은 모두 같다고 하였다. 결국 조황은 ‘격양가’란 비단 농부뿐만 아니라, 때를 만나지 못하여 草野에 묻힌 선비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그의 삶과 감회를 읊은 노래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조황의 <주로원격양가>는 때를 만나지 못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자신의 향리인 구학산 골짜기에 은거하는 삶과 그 감회를 읊은 노래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무엇보다도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九鶴山 김흔 골에 桃花流水 사라드니
窈窕현 一洞天이 武陵仙源 아닐러나
두어라 此生에 남은 歲月 酒中에나 보니라. <擊壤歌 2>

北窓淸風 긴긴 날에 周易一卷 압헤 노코
白羽扇 흔들면서 太極圖를 구경허니
아마도 灑落현 胸襟이 羲皇上人 이르고나. <擊壤歌 16>

조황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구학산 골짜기를 선비들의 이상향인 ‘무릉선원’으로 생각하였다. 그 속에서 무더운 여름에 북창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역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소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羲皇上人’과 동일시 하고 있다. 자연에 은거하는 자신의 삶을 ‘무릉선원’이나 ‘희황상인’ 등과 같은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은거 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만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松下에 옷버서 걸고 물소리여 누어시니
淸涼현 이 세계에 三伏蒸炎 어디 간고
世路에 衣冠粧束人은 저 더운줄 모로년가. <擊壤歌 20>

黃鷄白酒醉飽허고 竹杖芒鞋徘徊허니

피마다 錦屏이요 이들저들 黃雲이다
아마도 世間悲秋士는 니 佳興을 모로리라. <擊壤歌 21>

이 은거 생활을 노래한 이 두 작품에는 자연에서의 삶과 세속에서의 삶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삼복더위에 소나무에 옷을 벗어 걸고 물소리를 즐기는 청량한 자연의 세계와 무더위에도 의관을 갖추어 꾸민 사람들의 세속적 세계, 그리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흥취를 마음껏 누리는 자연 속의 화자와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가을을 슬퍼하는 세간의 선비로²²⁾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 대비에서 화자는 “世路에 衣冠粧束人은 저 더운줄 모로년가” “아마도 世間悲秋士는 니 佳興을 모로리라”라고 하면서 ‘세로’ ‘세간’으로 표현된 세속적 삶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호와 세속적 삶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세속적 삶을 부정하고 전원적 삶을 긍정하는 것은 16세기 중반까지의 강호시조의 전형적 특징을²³⁾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황은 16세기 강호시조의 형성배경이 되었던 ‘致仕客의 閑寂’이나 ‘사화와 당쟁하의 明哲保身’과는 거리가 먼, 19세기 향촌사회에서 물질 기반을 상실하고 몰락해가는 사족이었을²⁴⁾ 뿐만 아니라, 16세기 강호시조에서 ‘속세와 강호’의 이분법적 세계상의 기반이 되었던 ‘道學的 根本主義’가²⁵⁾ 퇴색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에서의 은거의 삶에 대한 완전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였다.

桃花水 슬진고기 네丙穴에 나지마라
銀鱗이 번디길제 저漁父가 流涎한다

22) ‘春思女 士悲秋’(宋玉, <招魂>)에서 연유한 표현.
23) 김홍규, 『16, 17세기 江湖時調의 변모와 田家時調의 형성』,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173-175쪽.
24) 정홍모, 앞의 논문, 193쪽.
25) 김홍규, 앞의 책, 177쪽.

허물며 口腹을 치오려고 그맛기를 냇보는다. <擊壤歌 13>

東園에 桃李花야 네 繁華를 맛지마라
튀고튀여 다뿔후에 夜來風雨 어이흐리
그제야 어제닐 싱각허면 南柯一夢 아닐소냐 <擊壤歌 14>

첫 번째 작품은 화자가 물속의 고기에게 어부가 균침을 흘리고 있으니 함부로 미끼를 탐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화자와 물고기를 동일시하면 바로 드러난다. 물고기에게 미끼를 탐하지 말라는 경계는 화자가 스스로에게 세속적 삶을 탐하지 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로 해석된다.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도리화를 통하여 세속의 변화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즉 세속의 변화한 삶이란 한번 피고 지는 꽃과 같아서,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한바탕 허망한 꿈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경계하고 있는 작품이다.²⁶⁾ 조황이 자연 속에서 은거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처럼 세속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황은 <강호사시가>를 노래한 孟思誠이나, <전원사시가>를 지은 辛啓榮과 같이 오랜 벼슬살이 끝에 강호로 물러난 致仕客의 경우도 아니고, 영해의 대표적 사족가문 출신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연에 은거해 학문에 전념하면서 <楮谷田家八曲>을 창작한 李徽逸의 입장 과도 달랐다.²⁷⁾ 조황은 제천지방의 향촌사족으로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修己治人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대부 의식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세는 두 아들이 글공부를 폐하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기울

26) 다음 작품도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다. “北海上 찬 바름에 울고 오는 저 기력야 / 履霜고 堅氷혈줄 네가 능히 아라고나 / 슝름이 萬物靈되야 저 知覺이 업슬소냐. <擊壤歌 23>

27) 辛啓榮과 李徽逸의 삶에 대해서는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78-81쪽 및 164-166쪽 참조.

었으며, 이렇게 기울어 가는 가문을 부흥시키려 篤善其身하며 때를 기다렸지만 잘못된 과거제도와 부패한 봉당정치 때문에 出仕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²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주요원격양가>에 나타난 그의 삶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나타난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존재하는 조화로운 삶'이²⁹⁾ 신계영이 <전원사시가>에서 노래한 '한가하면서도 풍요로운 전원'에서의 '넉넉한 삶'이³⁰⁾ 보이지 않으며, 이회일의 <저곡전가팔곡>의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농민과 조화로운 협격관계를 유지'해³¹⁾ 가는 삶도 아니었다. 조항이 노래한 자연에서의 삶은 그가 관념 속에서 꿈꾸던 이상적인 은거의 삶이다. 그의 은거의 삶에는 이처럼 현실 생활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세속의 삶을 기웃거리는 자신에 대한 끝없는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은거의 삶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표현으로 형상화 하지 못하고, '무릉선원', '희황상인', '소요부' 등의 관습적 표현을 답습하고 있다.

2. 出仕, 때의 기다림

조항이 자연 속에서의 은거의 삶을 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는 열다섯에 平天下를 목표로 학문에 뜻을 두고, 첫답이 울 때 일어나 밤늦도록 학문을 닦았으니³²⁾ 지금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³³⁾ 잘못된 과거제도 때문에 뜻을 펴지

28) 조항의 삶에 대해서는 정홍모의 앞의 논문(173-183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 조항의 생애에 대한 사항은 이 글에 힘입었다.

29) 김홍규, 『江湖自然과 정치현실』, 앞의 책, 138쪽.

30) 이상원, 앞의 책, 88쪽.

31) 이상원, 앞의 책, 190쪽.

32) 十五에 志于學호여 平天下를 準의하고 / 鷄鳴起夜深寐호여 니 道理만 니 허거다 / 畢竟에 니 道行不行은 時運所關이로고나. (趙攄, <人道行 6>)

33) 甌冶子 큰 풀무에 王金霸鐵百鍊호여 / 一雙검 지어 니니 감시 마나 님즈업다 / 至今에 張華가 업스니 斗牛龍光 그 뉘 알리. <擊壤歌 5>

못하고 속절없이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면서³⁴⁾ 은거의 삶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의 은거는 정치현실에서 강호자연으로의 退去가 아니라, 몸은 전과 같이 향리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청산한다는 정신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형편은 이러한 은거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조황이 현실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몰락한 가문을 부흥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뿐이다.³⁵⁾ 이를 위하여 그는 은거의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³⁶⁾

조황이 이처럼 간절하게 出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앞서 말한 현실적·경제적인 문제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그의 삶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대부들은 ‘修己治人’을 중요한 생활태도로 삼았다. 즉 ‘士’로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大夫’가 되어 교화를 정사에 베풀어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다. 조황도 그 학문의 목표를 ‘평천하’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슬길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황에게서 출사는 단순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東風에 細雨석거 太平春光 그려너니
 唐虞世 一度花요 漢文帝의 三月이라
 바람이 저和氣 모라다가 이 民間에 헛쳐주렴. <擊壤歌 11>

34) 唐太宗 宗통안에 天下英雄 다 늘거다 / 鄉三物 더저두고 聲律試士 어인 닐고 / 그 중에 世間公道가 白髮흔아 썬이로다. <擊壤歌 6>

35) 정홍모, 앞의 논문, 187쪽.

36) 男兒의 立身揚名 顯父母도 크다마는 / 士君子 出處間에 時時가 關重허다 / 아마도 晝耕코 夜讀하여 俟河之清허리로다. (조황, <人道行 7>)

이 작품은 <주로원격양가>의 본사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태평춘광’이 도래한 바깥세상과 아직도 봄의 ‘화기’가 미치지 않은 ‘민간’의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 바깥세상에는 이미 봄이 왔건만, 화자 자신이 속한 ‘민간’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아, ‘민간’에까지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기다리는 ‘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중장의 ‘唐虞世’와 ‘漢文帝’에 있다. ‘당우세’는 요순시대로 전설적인 태평성대를 일컫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조황의 <箕裘謠 3>에 “堯舜의 四門밖과 오고 오는 선비중에 / 臯夔와 稷契이가 무슨 글을 넘겨서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草野에 묻혀있는 臯·夔·稷·契을 발탁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미루어 생각하면 이 시조의 ‘당우세’란 어진 임금이 草野에 묻혀 사는 어진 선비를 발탁하는 이상적인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漢文帝는 널리 賢良한 인재를 구하는 賢良科를 운용하기 시작한 왕으로, 在位 2년에 “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를 천거하도록 하였고, 재위 15년에 다시 인재를 천거하도록 한 황제라고 한다.³⁷⁾ 따라서 ‘한문제의 삼월’이란 황제가 어진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여 발탁한 좋은 시절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봄’이란 어진 임금이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를 발탁하는 좋은 시절을 의미하여, 화자는 바로 이러한 때가 와서 초야에 묻혀있는 자신을 발탁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春眠을 찌리 업서 日高三竿 모로거나
 千日睡 足헌 後에 平生大夢 찌닷거다
 世人이 나 쉰줄 모르고 잠만 잔다 허더라.<擊壤歌 15>

前山에 노든 스슴 썰간후로 못보거다
 世間에 네 罪 업시 藏蹤秘跡 무슴 일고

37) 정홍모, 앞의 논문. 191쪽.

아마도 秋風에 쓸 씻거든 다시 불가 흐노라. <擊壤歌 17>

松壇에 잠든 鶴이 一陣霜風 꿈을 씌여
月下에 홀적 나니 九萬里에 길 여럿다
저鶴아 툇이를 빌려라 六畝 안에 로라보자. <擊壤歌 24>

夕陽天 눈긴 후에 낚히 도는 솔오기야
이제날 네 貌樣이 鴻鵠이나 다를쇼나
明春에 식씨둑 나거든 다시 불가 흐로라. <擊壤歌 27>

위의 네 수의 시조는 <주로원격양가>의 春詞·夏詞·秋詞·冬詞에서 각각 한 수씩 뽑아온 것이다. 네 작품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 작품은 제갈량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몰라주는 세상을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고, 두 번째 작품은 뿔을 간 사슴을 통하여 시대가 맞지 않으면 숨어서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구만리장공을 나는 학의 날개를 빌려 온 세상에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쳐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도 솔개를 통하여 큰 뜻은 펼 수 있는 좋은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주로원격양가>에는 ‘때’를 기다려 出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매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다. 이것은 조황에게 출사는 개인적·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더 절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은거의 삶을 노래한 노래라기보다는 은거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출사의 ‘때’를 기다리는 노래라 생각된다. 즉, 이 노래는 강호자연에 있으면서 정치현실을 동경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주로원격양가>는 이런 점에서 전대의 ‘사시가지계 연시조’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사시가지계 연시조’는 자연 속에서 사시의 변화에 따

라 조화롭고 넉넉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 노래는 자연 속에서 오히려 정치현실을 동경하면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자연에 은거를 택한 동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대 사시가계 연시조 작가들은 대개 정치현실에서 致仕한 후에 강호자연으로 물러났지만, 조항의 경우에는 出仕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으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천지방의 몰락하는 향촌사대부 출신인 조항의 현실적·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그의 삶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3. 愛民, 빈천의 도

조항은 향촌사대부로 가세가 매우 빈한하였다. 세 아들 중 둘은 학문을 폐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³⁸⁾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작농이었다. 그 자신도 ‘晝耕’ ‘夜讀’하며 ‘때’를 기다리는³⁹⁾ 빈한한 선비였기에 농사일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勤苦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주료원격양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작품이 많이 보인다.

洪爐中 타는 밧헤 終日허는 저 農夫야
네 勤苦 저러커닐 니 遊食은 어인닐고
우리도 勞力養君子 ㅎ야 愛民허기 바라노라. <擊壤歌 18>

밤시벽 桔槔聲에 누어신들 잠이 오라
霖雨姿 엷다 허고 憂國願豐 아닐소나

38) 吾有三子 二以畊養廢學 (조항, <人道行序>)

39) 男兒의 立身揚名 顯父母도 크다마는 / 士君子 出處間에 時時가 關重허다 / 아
마도 晝耕코 夜讀ㅎ여 俟河之清허리로다. (조항, <人道行 7>)

엇지면 枕下泉 자아다가 人間雨를 지여 불고. <擊壤歌 19>

山村에 秋夜長허니 擲梭聲이 淒涼허다
一時나 달게 자면 徵租索錢 어이 허리
世間에 綺紈家子弟덜리 저 勤苦늘 思量넌가. <擊壤歌 25>

山窓에 雪撲거널 濁酒三盃御寒허고
溫埃에 轉輒허니 悠悠我思迂濶허다
언제나 니 康濟미뤄여서 大庇寒士 허여불고. <擊壤歌 26>

첫째 작품과 둘째 작품은 농민의 일과 화자 자신의 일을 대비시키고 있다. 화로같이 뜨거운 밭에서 종일토록 일하는 농민들의 ‘勤苦’에 자극 받아 자신도 힘써 균자를 길러 애민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농민들이 가뭄에 이기기 위해 밤새도록 물 길는 두레박 소리에 자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물을 길러낼 방도를 생각하고 있다. 셋째 작품은 베 짜는 아낙네와 세간의 부잣집 자제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세금을 바치기 위해 기나긴 가을밤에 베 짜는 소리를 들으며, 좋은 옷 입은 부잣집 자제들은 베 짜는 수고로움을 생각이나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끝으로 넷째 작품은 杜甫의 <茅屋爲秋風所破歌>에 근거를 둔 시조이다. 가을에 비바람이 몰아쳐 초가의 지붕이 날아 가버리고, 지붕도 없는 초가집에서 긴긴 밤을 비에 젖어 보내면서도 두보는 “천만간의 넓은 집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까 / 천하의 한사를 비호하여 같이 즐거운 얼굴을 하고 / 풍우에도 끄덕 앓을 산 같은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라”⁴⁰⁾라고 노래하였다. 조황도 이를 본받아 자신을 편안히 구제하는 것을 미루어 천하의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하는

40) 安得廣廈千萬間 / 大庇天下寒士俱歡顏 / 風雨不動安如山 (杜甫 <茅屋爲秋風所破歌>)

일을 보고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미루어 온 세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이러한 애민의식은 조황이 농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황은 스스로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깊은 애정을 보이면서 자신의 안일을 뒤로하고 천하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의식을 가진 것은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그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주로원격양가서’에서 옛날 격양가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저 어리석은 늙은이는 벼슬길에 나아가기 못하고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빈천에 처하여 빈천의 도리를 행하던 자이다.”라고⁴¹⁾ 하였다. 여기서 ‘빈천에 처하여 빈천의 도리를 행한다’는 것은 『中庸』에 나오는 말로⁴²⁾ 군자는 어디에 처하던 그 처하는 바에 따라 ‘도’를 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황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자식들과 함께 손수 농사를 짓는 빈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이러한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를 행한 것이라 생각된다.⁴³⁾ 즉 농민의 삶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그들의 일을 보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미루어 온 세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은 바로 조황이 행한 ‘빈천의 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원격양가>에 보이는 애민의 노래들은 조황이 빈한한 처지에 처하여 ‘빈천의 도’를 읊은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원격양가>는 ‘은거’ ‘출사’ ‘애민’의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어울려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자연 속에

41) 彼蚩蚩一老 無預廢歌之席 而有事耕鑿之野 乃所以素貧賤 而行貧賤者也 <酒老園擊壤歌序>

42)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 <『中庸』 14장>

43) 이와 유사한 예를 李徽逸의 <저곡전가관곡>의 다음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世上의 버린 몸이 畎畝의 늘거가니 / 밭겉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일고 / 이 中의 憂國誠心은 年豊을 원호노라

은거하면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도’를 행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주로원격양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형식적으로는 사시가적 구조를 지닌 사시가계 연시조 작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대의 사시가계 연시조 작품과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주로원격양가>는 자연 속에서 삶을 노래한 점에서는 전대 사시가계 연시조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은 전대의 사시가에 나타난 자연과의 ‘조화로움’이나 자연 속에서의 ‘넉넉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 속에서 꿈꾸던 은거의 삶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강호자연에 있으면서 정치현실을 동경하면서 노래라는 점에서도 전대의 ‘사시가계 연시조’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사시가계 연시조’는 사시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 속에서 조화롭고 넉넉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 노래는 자연 속에서 오히려 정치현실을 동경하면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주로원격양가>에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애민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이것은 농민의 삶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조황이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처지에 사대부로서 행한 ‘빈천의 도’를 노래한 것으로, 이 또한 전대의 사시가계 연시조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19세기 제천지방의 몰락하는 향촌사대부 출신인 조황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세는 두 아들이 글공부를 폐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빈한하였다. 이러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경야독하며 출사의 때를 기다렸지만 잘못된 과거제도와 부패한 봉당정치의 폐해 때문에 出仕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에 은거하면서도 출사의 때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현실적·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그의 삶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대부들은 ‘士’로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大夫’가 되어 교화를 정사에 베풀어 ‘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였다. 조항도 그 학문의 목표를 ‘평천하’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슬길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항에게서 출사는 단순히 현실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도’를 행하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조항의 <주로원격양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이 연시조로서 가지는 구조를 밝히고, 작품 전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통일체로 파악하여 이 작품에 드러난 총체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1. <주로원격양가>는 서사와 본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서사는 다시 3개의 의미 단락으로 짜여 있다. 첫째는 자연에의 은거의 결심을, 둘째는 은거의 동기를, 그리고 셋째는 자연 속에서 은거의 삶을 포괄적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2. 본사는 일 년의 四時인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객관적 자연의 시간이 작품의 전개의 질서로 실현되어 작품에서 春詞·夏詞·秋詞·冬詞로 나타나 사시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詩想이 전개되는 사시가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3. 본고에서 조항의 <주로원격양가>가 사시가계 연시조임을 밝힘으로써 ‘사시가계 연시조’의 전통은 17세기 중반 李徽逸의 <楮谷田家八曲>이 후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주료원격양가>는 出仕의 ‘때’를 만나지 못한 조황이 세상사를 모두 잊고 자신의 향리인 구학산 골짜기에 은거하는 삶을 읊은 노래이다. 그러나 그가 노래한 은거의 삶은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관념 속의 이상적 삶이다. 따라서 그 삶이 구체적 표현으로 형상화 되지 못하고, ‘무릉선원’, ‘희황상인’, ‘소요부’ 등의 관습적 표현을 답습하고 있었다.

5. <주료원격양가>에는 ‘때’를 기다려 出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매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다. 이것은 조황에게 출사가 개인적·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더 절실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료원격양가>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은거의 삶을 노래한 노래라기보다는 은거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출사의 ‘때’를 기다리는 노래라 보았다.

6. <주료원격양가>에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애민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 많다. 이러한 작품은 농민의 삶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조황이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처지에 사대부로서 행한 ‘빈천의 도’를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주료원격양가>는 ‘은거’ ‘출사’ ‘애민’의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어울려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도’를 행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주료원격양가>임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조황의 <주료원격양가>에 나타난 구조를 밝히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조황과 그의 시조를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조황 시조 작품 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시조의 한 양상을 파악하고, 조선조 향촌 사대부들의 시조의 전통과 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았다. 이는 후고를 기약하며 이 글을 맺는다.

주제어 : 사시가, 사시가적 구조, 은거, 출사, 애민, 빈천의 도

참고문헌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247-262쪽.
-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10-85쪽.
-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문학박사학위논문, 전남대대학원, 1992.
- 김홍규,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135-160 및 184-192쪽.
-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세종문화사, 1972. 31-34쪽.
- 이동연, 『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 57-98쪽.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78-93 및 184-192쪽.
- 鄭明世, 『趙三竹時調의 研究』, 『語文學』 48집, 한국어문학회, 1986. 177-201쪽.
-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집문당, 1995. 237-279쪽.
- 조규익, 『趙梶의 노래』,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327-353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제3판, 지식산업사, 2003. 306쪽.
- 최재남, 『이황의 도산생활과 육가의 수용 및 전승』, 『士林의 鄉村生活과 詩歌文學』, 국학자료원, 1997. 246-281쪽.
- 崔東元, 『15세기시조의 양상과 성격』, 『古時調論考』, 삼영사, 1990. 35-57쪽.

<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Juwongyeogyangga>

Cho, Tae-Heum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overall meaning of the work <Juwongyeogyangga> by Chohwang. We summarize the following based on the discussion so far.

1. The prologue of <Juwongyeogyangga> consists of three equally meaningful paragraphs. We showed that the first paragraph sings of the speaker's determination to live in retirement as a part of nature, and that the second paragraph expands the motif of choosing that retirement, while the last paragraph expounds on the speaker's life inside nature.

2. The 4 seasons of one year is mirrored in the progress of this work. This verse (sijo) has 4 seasonal verse structures that poetical imagination develops according to the sequential progress of the 4 seasons in the following order; the spring, the summer, the fall, the winter.

3. <Juwongyeogyangga> is mainly about living a life of retirement as an integral part of nature and this life of retirement which the author describes is an ideal life in his conception. It does not concretely embody his life, but rather follows in the steps of traditional literary expression, because his life in this work is far removed from the author's actual life.

4. In the work <Juwongyeogyangga>, the author repeatedly sings in every season of hopes to enter government office. Therefore, this work is a song which awaits the time of achieving government office by living in retirement rather than singing of a life of simple retirement.

5. In the work <Juwongyeogyangga>, the direct expression of affection and admiration towards the peasantry can be seen. This kind of work expresses the overarching morality of poverty and lowliness in the eyes of society and Chohwang himself had deep comprehension of the farmer's life and also used metaphors connecting the farmer's work to that of illustrious officials.

Key Words : 4 seasonal verse, 4 seasonal verse structure, retirement, entering government office, love of people, morality of poverty and lowliness